



MERITZ

유통/화장품 Weekly

달라진 소비의 알고리즘

1. 금주의 이슈
2. 전주 동향
3. 금주 전망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5. 주요 뉴스
6. 주요종목 Valuation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10. 주간/월간 수익률
11. 주가 추이
12. 업종별 지수 추이
13. 소비 주요지표
14. 중국 소매판매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16.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17. 면세점 동향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1. 금주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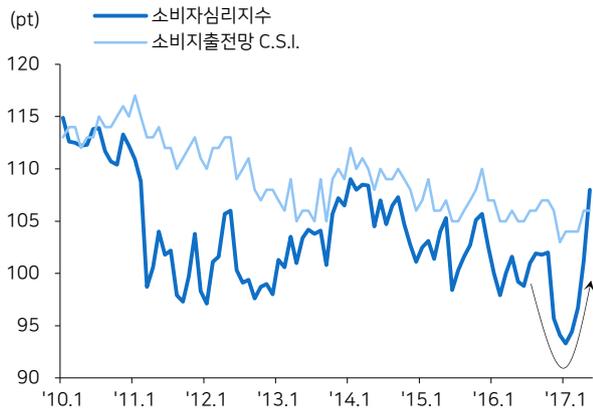
달라진 소비의 알고리즘

소비심리 지수 반등에도 소매판매 회복 여부 불확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유통업종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1월을 저점으로 3월 이후 4월과 5월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소비심리 회복에도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의 반등은 지난해 말 정치적 이슈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심리가 회복되는 수준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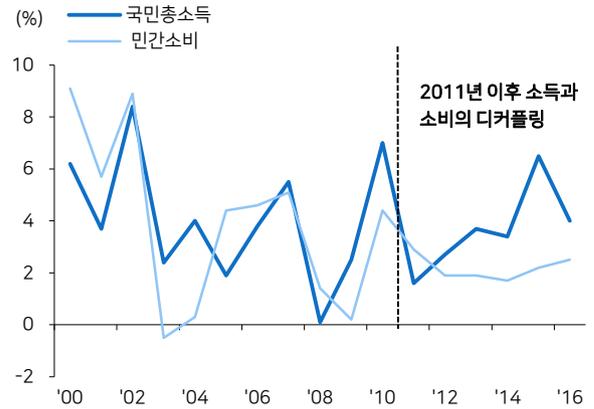
특히 2011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률과의 상관관계도 약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내수 침체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클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업체별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1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비자출전망 C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민총소득 증가율 VS.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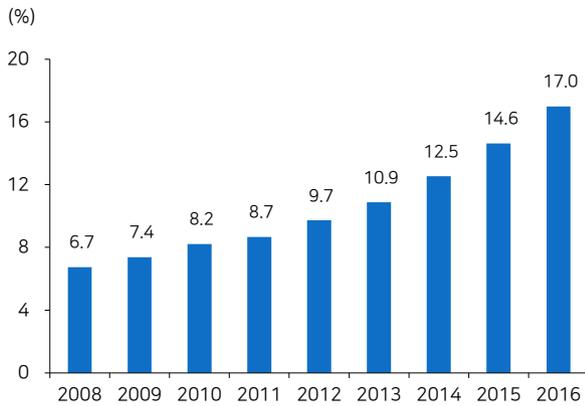
달라진 소비의 알고리즘

1) 온라인 2) 고령화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의 거시적 핵심 변수는 1) 온라인과 2) 고령화이다. 2011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함께 온라인 쇼핑 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2015년부터 모바일 쇼핑 시장은 이용자 규모의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쇼핑 체류 시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체 소매유통 시장 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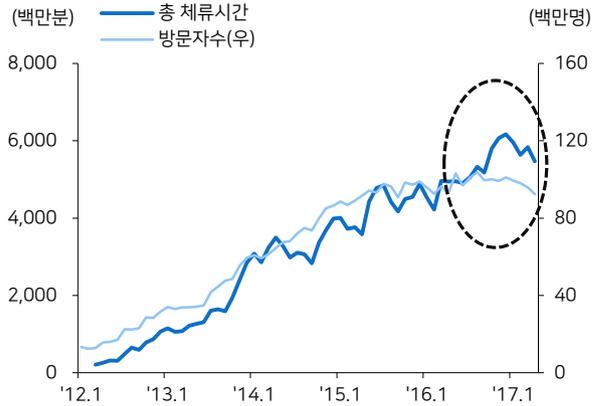
고령화 또한 구조적으로 소비 흐름을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노년층의 예비적 저축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을 줄일 가능성이 잠재한다. 또한 중장년층부터 불안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면서 국내 평균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림3 소매유통 내 온라인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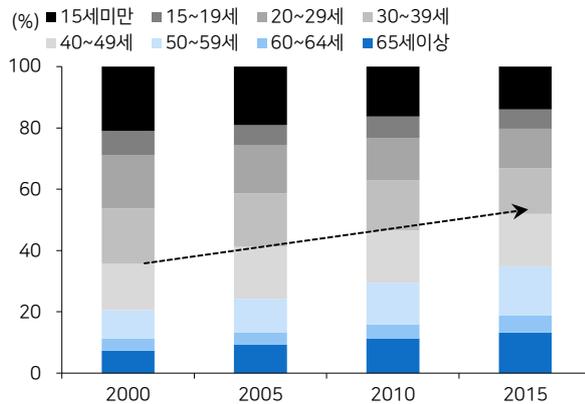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모바일 순방문자수 vs. 총체류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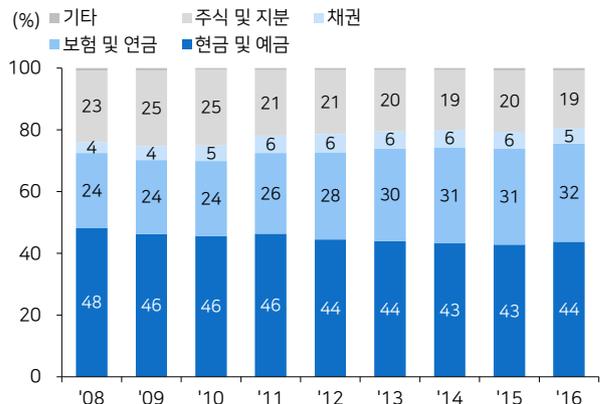
자료: 닐슨코리아클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 금융자산: 보험/연금 비중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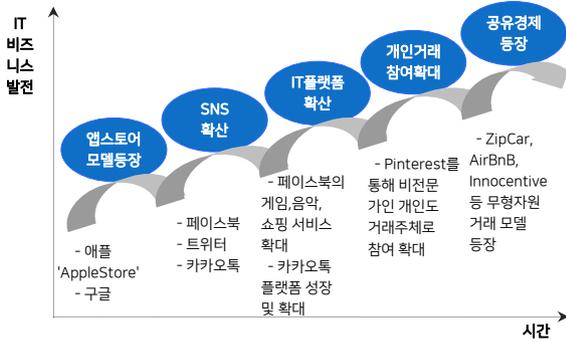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등장
1) 렌탈 2) 중고마켓 3) 셰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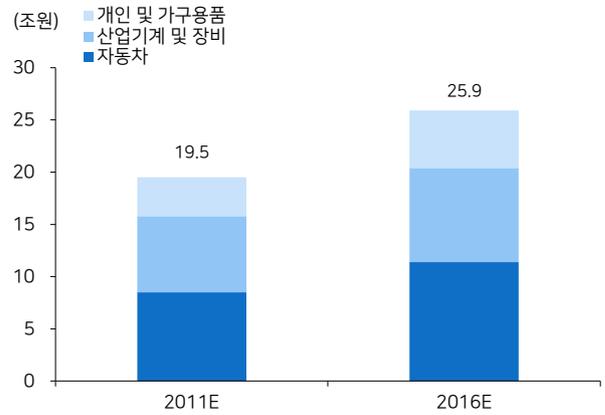
공유경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등장 또한 거시적인 소매판매액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여 적은 비용으로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렌탈서비스는 대여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모델로 공유경제의 가장 보편화된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중고마켓과 셰어링서비스의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들은 기존 유통 매커니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객 접점 확대에 보다 집중하고 있지만 가격의 재설정을 통해 중장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

그림7 IT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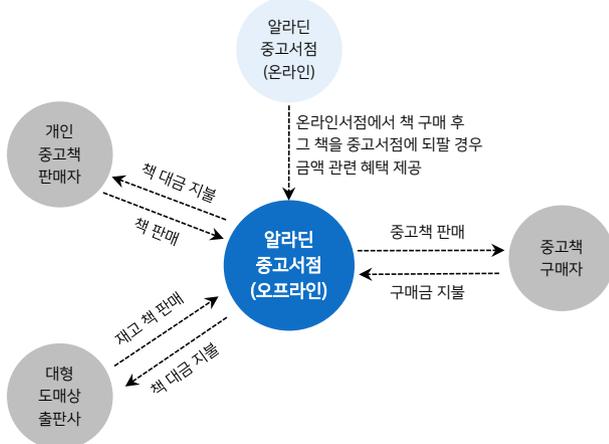
자료: 클라우드 산업연구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 렌탈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알라딘 중고서점 비즈니스 모델



자료: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SK플래닛 프로젝트 앤



자료: SK플래닛,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한계
1) 입지 강점으로 성장 2) 정부의
규제 영향 불가피

Economist에 따르면 (American retailing, "Sorry, we're closed", 5/13, 2017) 최근 미국 쇼핑센터들의 매각과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면적 감소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Simon Property Group과 Taubman Centers 등 상업용 부동산 Developer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주요 입지를 강점으로 성장해온 기존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위는 견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 시설의 발전 단계에서 쇼핑센터나 라이프스타일 센터 등 상위 모델보다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하위 모델 집중도가 높아 변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백화점, 할인점이라는 획일화된 포맷으로 2000년대 너무 빠르게 확장하면서 주요 입지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일본과는 다르게 주요 상업시설이 유통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의 요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 영향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표1 오프라인 유통시설의 발전단계			
1단계) 백화점	2단계) 슈퍼마켓/할인점	3단계) 쇼핑센터	4단계) 라이프스타일 센터
1852년 본 마르쉐(프) 1858년 메이시 (미) 1904년 미츠코시 (일) 1930년 신세계 (한)	1930년 King kullen (미) 1952년 케이한 SM (일) 1963년 다이에 GMS (일) 1968년 뉴서울 SM (한) 1993년 E-mart 창동 (한)	1948년 오히이오SC (미) 1969년 다카시마야SC (일) 1992년 이온몰 (일) 1976년 연희쇼핑센터 (한) 2009년 타임스퀘어 (한)	1987년 Saddle Creek (미) 1997년 선스트릿카메이도 (일) 2002년 Grove (미) 2008년 Americana (미)
- 명품 소싱과 VIP 위주로 발달하였으나 지나친 효율 추구로 차별화 실패	- 미국에서 최초 등장 - 경기침체에 할인 및 합리성을 중심으로 추구	- 미국에서 최초 등장.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도래에 따라 증가 - 공간적 즐거움 및 엔터테인먼트 성과 결합	- 지역교류의 장소로서 Town Center 기능을 수행하는 LSC의 등장 - 커뮤니티 기능 강화
Building형 SC	Building형 SC	Mall형 SC	Street형 SC
			5단계) 도심형 복합개발 - MXD
			1986년 아크힐즈 (일) 2003년 록본기힐즈 (일) 2007년 미드타운 (일)
			- 도심에서의 LSC형태 등장 - 디벨로퍼에 의해 개발
			복합개발형 SC
Shopping Center로서의 공간	Shopping Center로서의 공간	제3공간(Third Place)으로서의 공간	제3공간(Third Place)으로서의 공간

자료: 복합부동산개발 및 운영사업의 이해,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표2 일본 상업시설 주요 디벨로퍼				
구분	모회사/그룹	개발 주체기업	내용	주 브랜드
유통계열 디벨로퍼	이온그룹	이온 리테일	- 일본 최대 SC디벨로퍼 - SC개발의 포지션 분업화 - 이온리테일: GMS운영 및 SC개발도 담당 소매업을 주 활동영역으로 삼고 패션빌딩 운영을 계속 할 예정	Forus, VIVRE
		이온몰 외	- 이온몰: 대규모 PJT 담당 /	이온몰
		이온타운	- 이온타운: NSC 담당	이온타운
	세븐&아이 홀딩스	몰 SC개발	- 세븐&아이 홀딩스는 SC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 - 이토요가토가 이 그룹의 SC인 '아리오'를 개발 및 운영	아리오 외
	다카시마야 그룹	토신개발	- 백화점을 담당하는 다카시마야의 자회사, 일본에서 본격적인 SC개발에 착수한 선두기업 - 토신개발: 개발, PM담당 / 모회사: 소매업을 개발 및 키 테넌트 출점	다카시마야 SC 등
	J프론트 리테일링	파르코	- FB전문 개발, 운영기업 - 2012년 8월, 모리 트러스트에서 다이마루 마쓰자카야 백화점을 만든 J프론트 리테일링 산하에 들어갔음 - 최근 비교적 소형 제로 게이트 개발 사례가 늘고 있음	파르코, 제로게이트
부동산 계열 디벨로퍼	미쓰이 부동산	미쓰이 부동산 상업시설 본부	-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상업시설 본부가 SC, 도시형 상업빌딩, 아울렛 등 형태별 개발 진행 - 개발 후 미쓰이 부동산 상업 매니지먼트가 담당 - 해외 진출 적극적: 중국에 아울렛 운영 * 홍콩, 말레이시아에 아울렛을 개설 예정 / 중국 상해에 SC라라포트를 출점할 계획	라라포트 등 미쓰이 아울렛 파크
	미쓰비시 지소	미쓰비시 지소	- SC개발에서 상업, 물류사업부 담당 - 작년부터 SC를 기본으로 한 브랜드 'MARK IS' 운영	MARK IS 등
		미쓰비시 지소 사이먼 (구, 첼시 재팬)	- 2013년 2월부터 아울렛 사업 담당 - 2012년에 중국 요녕성에 진출 - 아울렛 등 - 2013년에 상해에 현지법인 설립: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지속적 개발 예정	프리미엄 아울렛
스미토모 상사	스미토모상사 어반 개발	- 스미토모 상사의 자회사로 PM업무 담당 -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모회사인 상업시설 사업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진행	테라스 몰 등	
철도 계열 디벨로퍼	JR그룹	JR 동일본 그룹 (24개사)	- JR 동일본이 출자한 SC는 JR 동일본 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비교적 소규모 SC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자회사 24개, 152개소에 이룸	루미네 아트레 등
		JR 서일본 그룹 (21개사)	- JR 서일본 그룹은 관련회사 21개사, 104개소	루쿠아, MIO 등
	한큐 한신 토호 그룹	한큐 한신 빌딩 매니지먼트	- 지하철 계열인 '한큐 한신 홀딩스', 리테일 계열인 'H2O 리테일링', 영화산업계열인 '도호그룹'으로 구성 - 한큐 한신 빌딩 매니지먼트 그룹 최대의 종합시설 관리회사	HEP, 가든즈 등
		한큐 상업개발	- 한큐 상업 개발은 H20에 소속 (각 그룹에서 중소규모 상업시설을 다수 운영)	모자이크 몰 등
	도큐 그룹	도큐 몰즈 디벨로먼트	- 한큐 지하철 계열과 한큐 부동산 계열로 나뉘어 구성 - 도큐 몰즈 디벨로먼트: 109 등의 FB 및 SC (타마 플라자 테라스 등) 개발	도큐SC, 109 등
도큐 부동산 SC매니지먼트		- 도큐 부동산 SC매니지먼트: 칸사이에서 SC크루몰로 성공	큐즈몰 등	

자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전주 동향

📊 유통

5월 마지막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유통업종 주가 상승은 1) 4월 소매판매 회복 (전월대비 0.7% 증가) 2)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3) 수출주 모멘텀 둔화에 따른 내수주의 상대적인 투자매력 부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4월 가전제품의 소매판매액이 +18.1% YoY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상승하였고 홈쇼핑 업체들 또한 렌탈 등의 판매 호조가 예상되면서 주가 반등하였음. 롯데쇼핑이 4,5월 할인점 기준점성장을 회복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이마트의 중국사업 철수 확정, 신세계의 루이비통 면세 입점 확정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화장품 (생활소비재)

5월 마지막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4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화장품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였으며 5월 화장품 수출액 또한 +5.9%에 불과하였고 특히 중국향 수출은 -5% 하락한 것으로 추산됨. 종목별로는 1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LG생활건강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함. 특히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클리오 등 중소형 화장품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음. 한편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분기배당 메리트가 있는 코웨이와 렌탈 부문의 고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쿠쿠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음

3. 금주 전망

📊 유통: 가전 제외하고는 소매판매 회복 미미

신정부 출범으로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이 기대되면서 전반적인 유통업종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다만 소비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롯데하이마트와 일부 홈쇼핑을 제외한 주요 유통업체들의 소비 회복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통업종에 대한 점진적인 차익실현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상반기 유통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외형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일부 일회성 요인을 포함하여 수익성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의 높은 성장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였음. 3분기부터 외형 성장이 다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점차 둔화될 전망. 또한 정부의 경제 민주화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규제가 확정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음

📊 화장품 (생활소비재):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실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타격은 2분기 더욱 심화되고 있음. 향후 중국 정부의 압박 강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면세 채널의 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에 입지한 브랜드샵 채널의 타격도 상당함. 2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화장품업종의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전망. 중국 이외 미주,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성은 유효함. LG생활건강을 Top-pick으로 유지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낮고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갖춘 중소형 종목들 (네오팜,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화장품 등)에 대한 관심요망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유통

관심종목

롯데하이마트 (071840):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와 에어컨, 건조기 등 백색가전의 판매 증가 예상. 고마진 생활가전과 PB, 해외소싱 상품 등의 비중 확대로 매출총이익률 상승 등 효율성 개선, 온라인 및 서비스 상품 강화 또한 긍정적

BGF리테일 (027410):

점포수 급증과 전자담배 출시로 2017년 편의점의 양적인 성장 두드러질 전망. 상품믹스 개선과 함께 순수가맹 중심으로 고정비성 비용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이익 증가 예상됨

종목 코멘트 (탐방)

현대백화점 (069960)

- 2분기 현황: 4, 5월 기준점성장률 -1% 수준이 예상됨. 산업평균 0.5% 대비 부진한 이유는 1) 경쟁사의 신규 출점과 2) 자체적인 리뉴얼 (천호점 등) 영향으로 판단됨.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크게 부진했던 울산점이 하반기에 회복되면서 점차 산업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출점 현황 및 향후 계획: 1) 위례 가든파라드 도심형 아울렛 5/26 오픈, 2017년 매출액 1,100억원, 영업손실 50억원 내외 예상 2) 2018년 코엑스 면세점 및 천호점 증축 완료 예정 3) 2019년 대전, 동탄, 진건 아울렛 출점으로 총 영업면적 16.3% YoY 확대될 전망
- 업종 내 상대적인 주가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2017년 PER 9배로 소외되어 있음. 향후 기준점성장률 회복 여부에 따른 반전 기회 모색

📊 화장품 (생활소비재)

관심종목

LG생활건강 (051900)

신정부 출범으로 중국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단계 진입. 2분기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화장품 면세 채널의 실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음료 성수기 진입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전망

종목 코멘트 (탐방)

코스메카코리아 (241710)

- 1분기 매출액 506억원 (+48.2% YoY), 영업이익 48억원 (+40.9% YoY) 기록. 경쟁업체 대비 선방한 이유는 1) 상대적으로 브랜드샵 매출 비중이 낮고 2) 규모의 차이에 따른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다만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른 매출원가율 +2.7%pt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0.5%pt 소폭 하락하였음
- 2분기 현황: 사드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작지만 부정적 영향 불가피할 전망. 지난해 대비 OEM/ODM의 성수기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Capa 증설 계획 1) 국내법인 1억개 -> 1억 9천만개로 증가 (11~12월 예정) 2) 중국법인 1억 2천만개 -> 2억 4천만개 (2018년 완공 예정), 당분간 중국 현지 토텍크림 판매 호조로 고객사 오더 증가 지속될 전망

5. 주요 뉴스

유통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8월 발표...52시간 근로' 6월국회 논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8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시기별로 선별. 공공·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는데, 우선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도입할 예정.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양대 노총이 빠지는 등 현재 파행 상태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오는 29일까지 최소 10% 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매일경제, 6/1)

대형마트·백화점 신규출점 어려워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재 1km로 돼 있는 전통시장 보존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고려 대상.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허가제 전환 외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점포 개설자에서 제3기관으로 바꾸는 방안, 점포 등록 소재지 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3개를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상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 (서울경제, 5/30)

벼랑 끝 면세점 '특허 수수료 과도' 헌법 소원: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는 최근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출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롯데면세점 등 9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 정부는 면세점이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기간 연장 등의 정책·법제화는 무산된 상태에서 특허수수료만 과도하게 올랐다"고 주장 (서울경제, 6/1)

이마트 중서 완전철수 ... 스타필드는 원점 재검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날 신세계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고 "중국 시장에서 이마트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스타필드 출점 전략과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위드미 저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점포 수를 늘릴 만한 획기적인 방안 발표가 한 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인수합병(M&A)은 아니고, 미니스톱 인수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함 (서울경제, 6/1)

화장품 (생활소비재)

5월 한국 화장품 수출 증가, 비중화권 호조 견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한국 수출액은 450억달러로 지난해 보다 13.4% 증가했으며 5대 유망소비재중 하나인 화장품은 5월 3억 5,900만달러, 5.9% 증가. 65~75%를 차지하는 중화권 수출은 전년 대비 5% 하락한 것으로 추정. 대중 수출이 역신장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30~35%를 차지하는 비중화권 수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 미국, EU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7.4%, 23.3%, 51.1% 증가해 호조를 보였으며 기초화장품도 지난해보다 8.6% 증가 (코스인코리아, 6/2)

사드 보복 완화? 화장품 업계 '화색':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음. 아직까지 가시화된 중국의 공식발언이 있지는 않았지만 중국 현지외 분위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소비자의 날'인 지난 15일 중국 홈페이지에 배우 전지현이 등장하는 화장품 브랜드 '헤라' 광고를 다시 게재하기 시작. 그동안 잘 해결되지 않았던 화장품의 중국 특허 취득 소식과 생산허가 취득 소식도 전해짐 (장업신문, 5/31)

신세계면세점, 루이비통 매장 9월 오픈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오는 9월 루이비통 매장을 열 계획. 루이비통 매장은 명동점 8층에 입점하며 오픈을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 중. 명품 브랜드 입점은 면세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루이비통 매장의 경우 매년 800~9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짐. 면세점 내 브랜드 매출액 가운데 1위. 신세계면세점의 루이비통 매장 오픈으로 면세점 실적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 (이데일리, 6/1)

베트남에 첫 발 내딛은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푸칸(PHU KHANH) 면세점을 설립했으며 지난달부터 다낭공항 국제선 신청사에서 면세점을 시험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힘. 합작법인의 롯데면세점 지분은 60%. 다낭 공항점은 약 1000㎡ 규모로, 현재 이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이르면 8월 말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기회가 되면 호찌민, 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추가로 면세점을 열 계획"이라고 밝힘 (매일경제, 6/2)

코웨이 '공유 공기청정기' 대만에 돈다: 코웨이는 지난 26일 대만 타이베이 네이후에서 대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웨이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AP-1516D'를 포함해 총 3개의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힘. 올해 상반기 대만시장내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 지난 3월에는 대만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코웨이 AP-1009CH 모델이 판매수량 기준 2위를 달성 (서울경제, 5/30)

CU,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5일부터 판매: 편의점 CU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오는 5일부터 판매한다고 2일 밝힘. 5일 정오부터 서울지역 2천여 점포에서 예약물량과 함께 나머지 한정물량이 시중에 처음 선보일 예정. 하지만 신종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과세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 논란. 아울러 보건/금연 단체 사이에서는 일반 담배를 가장 비슷하게 흉내 낸 신종 전자담배가 담뱃갑에 경고그림까지 넣어 금연율을 높여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연합뉴스, 6/2)

쿠쿠전자, '시흥공장' 준공식 개최: 1일 쿠쿠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관계자가 모여 경기도 시흥 생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지역 내 저소득층 세대에게 밥솥 100대, 제습기 100대를 증정했다고 밝힘. 이번에 완공된 쿠쿠전자 시흥공장에서는 매달 정수기 7만대와 공기청정기 4만대가 생산되며 약 7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예정. 쿠쿠전자는 시흥 공장 완공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생산라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 생활가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 (서울경제, 6/2)

서경배의 '22년 절치부심'... '설화수'로 프랑스 재공략: 아모레퍼시픽이 한방화장품 '설화수'로 프랑스 시장에 재도전. 1995년 프랑스에서 '순'과 '리리코스' 브랜드를 철수시킨 지 22년 만.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9월 프랑스 파리 명품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에 설화수 정식매장을 연다고 25일 발표. 이 백화점에 국산 화장품이 단독 매장을 여는 건 '투쿨포스쿨'에 이어 설화수가 두 번째. 설화수 매장은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본점 1층과 인터내셔널관 지하 1층 두 곳에 열 예정이며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프랑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선호 화장품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진출했다"며 "고급 한방화장품 브랜드로서 동양의 이름 다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경제, 5/26)

코스메카, 中 세번째 공장 내달 착공: 코스메카차이나는 지난해 6월 법인 설립 이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저장성 핑후 지역 토지허가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힘. 코스메카는 앞서 지난 2013년 쑤저우유한공사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 광저우 인근에 포산유한공사와 저장성 핑후에 세 번째 중국법인인 코스메카차이나를 설립 (서울경제, 6/1)

6.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99,000	9,416	25.5	21.0	0.5	0.5	2.3	2.7
	현대백화점	A069960	118,000	2,761	9.0	8.9	0.7	0.6	8.0	7.6
	신세계	A004170	247,500	2,437	13.4	11.6	0.7	0.7	5.5	6.0
	CJ오쇼핑	A035760	204,300	1,270	11.2	10.6	1.6	1.4	15.1	14.7
	GS홈쇼핑	A028150	236,600	1,553	13.4	12.4	1.4	1.3	11.3	11.3
	현대홈쇼핑	A057050	137,000	1,644	12.4	11.6	1.0	1.0	8.8	8.5
	엔에스쇼핑	A138250	18,050	608	11.5	10.7	1.4	1.2	14.2	13.5
	이마트	A139480	251,000	6,997	16.1	14.2	0.9	0.8	5.5	5.9
	GS리테일	A007070	56,200	4,327	21.6	17.9	2.1	1.9	9.8	11.1
	BGF리테일	A027410	131,000	6,491	29.1	23.6	5.9	5.0	22.0	22.0
	롯데하이마트	A071840	68,600	1,619	11.8	10.9	0.8	0.8	7.0	7.1
	호텔신라	A008770	61,200	2,402	66.8	27.5	3.4	3.0	6.3	12.7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340,500	19,905	38.2	30.9	5.4	4.7	14.9	16.4
	아모레G	A002790	149,000	12,286	39.2	31.7	4.0	3.5	11.3	12.5
	LG생활건강	A051900	1,002,000	15,649	27.5	24.6	5.5	4.6	23.1	21.2
	코스맥스	A192820	124,000	1,246	35.1	21.9	5.2	4.3	16.2	22.6
	한국콜마	A161890	82,800	1,747	26.9	22.0	5.3	4.3	21.6	21.8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73,000	390	23.5	17.4	3.2	2.8	13.9	16.5
	연우	A115960	33,850	420	22.1	17.5	2.1	1.9	11.1	11.9
	대봉엘에스	A078140	13,400	149	14.0	12.3	2.1	1.8	13.9	13.6
	SK바이오랜드	A052260	18,900	284	22.2	16.8	2.0	1.8	9.4	9.8
	클리오	A237880	38,700	656	27.4	19.8	4.6	3.9	17.7	20.8
	에이블씨엔씨	A078520	26,650	450	20.5	17.8	2.1	1.9	11.1	11.3
	토니모리	A214420	21,600	381	25.4	22.4	2.9	2.7	7.2	10.1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102,000	7,712	22.1	19.8	6.1	5.5	29.7
쿠쿠전자		A192400	159,500	1,564	18.4	16.4	2.1	1.9	14.0	14.6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23,000	474	27.3	17.8	4.7	3.7	19.9	22.7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23,150	684	20.1	19.1	4.3	3.7	24.4	20.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월마트	WMT US	80	240,014	18.3	17.3	3.2	3.1	17.1	18.4
	이베이	EBAY US	35	38,228	17.5	15.9	2.3	2.0	20.1	18.7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792	38,452	22.3	19.2	1.7	1.6	8.0	8.7
	노드스트롬	JWN US	42	7,052	14.3	13.9	9.0	9.3	60.6	71.6
화장품	로레알	OR FP	193	122,294	27.6	26.0	4.2	3.8	15.2	15.2
	에스티로더	EL US	96	35,360	28.3	25.5	9.7	9.2	33.5	42.6
	시세이도	4911 JP	3,833	13,879	50.0	39.6	3.7	3.4	7.5	9.1
	상해자화	600315 CH	28	2,739	44.2	35.5	3.3	3.1	7.5	8.7
생활소비재	LVMH	MC FP	231	132,406	24.3	22.0	4.0	3.6	17.0	17.1
	나이키	NKE US	53	87,458	22.0	20.8	6.9	6.4	31.5	31.1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38,240	36,718	34.9	32.3	6.0	5.3	17.9	16.9
	조지루시	7965 JP	1,325	871	12.6	11.9	1.5	1.4	11.2	10.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8.3	16.1	39.7	42.0	31.4	35.0	7.6	9.3	26.9	21.7	12.0	18.0
	현대백화점	4.9	7.8	20.7	8.3	(8.2)	8.3	4.2	0.9	7.9	(12.1)	(27.7)	(8.8)
	신세계	9.5	20.7	28.2	40.6	21.9	40.6	8.8	13.9	15.4	20.3	2.4	23.6
	CJ오쇼핑	6.9	8.7	8.9	27.6	7.4	25.4	6.2	1.8	(3.9)	7.3	(12.1)	8.4
	GS홈쇼핑	10.4	11.9	12.2	33.9	26.9	37.6	9.7	5.0	(0.6)	13.6	7.4	20.5
	현대홈쇼핑	2.6	13.7	22.9	26.3	(0.7)	22.9	1.9	6.8	10.1	5.9	(20.2)	5.8
	엔에스쇼핑	9.7	6.2	9.1	18.4	2.6	17.6	9.0	(0.7)	(3.7)	(2.0)	(16.9)	0.6
	이마트	9.4	12.1	23.3	32.1	42.6	37.2	8.7	5.2	10.5	11.8	23.1	20.1
	GS리테일	1.8	7.1	9.1	18.4	5.1	18.1	1.1	0.2	(3.7)	(1.9)	(14.4)	1.0
	BGF리테일	1.6	23.0	29.7	44.3	22.1	60.2	0.9	16.2	16.9	23.9	2.6	43.1
	롯데하이마트	9.4	25.9	42.5	48.8	34.8	62.6	8.7	19.0	29.7	28.5	15.3	45.5
	호텔신라	(0.5)	17.9	21.4	21.4	(6.6)	27.1	(1.2)	11.1	8.6	1.1	(26.0)	10.1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3.1)	17.6	18.2	10.7	(20.1)	5.9	(3.8)	10.8	5.4	(9.6)	(39.6)	(11.1)
	아모레G	(1.3)	12.0	21.1	22.1	(12.9)	12.0	(2.0)	5.2	8.3	1.8	(32.4)	(5.0)
	LG생활건강	0.7	17.9	16.0	24.9	(7.4)	16.9	0.0	11.0	3.2	4.6	(26.9)	(0.1)
	코스맥스	(3.1)	(12.7)	(9.8)	21.6	(23.9)	3.8	(3.8)	(19.5)	(22.6)	1.2	(43.3)	(13.3)
	한국콜마	(5.9)	3.1	13.3	33.6	(16.2)	25.8	(6.6)	(3.7)	0.5	13.2	(35.7)	8.8
	코스메카코리아	0.0	9.6	15.5	39.3	N/A	30.4	(0.7)	2.8	2.7	19.0	N/A	13.3
	연우	(4.0)	5.3	9.2	2.0	(25.8)	(12.2)	(4.7)	(1.6)	(3.6)	(18.4)	(45.3)	(29.2)
	대봉엘에스	1.1	5.1	12.6	17.0	(8.2)	13.1	0.4	(1.8)	(0.2)	(3.3)	(27.7)	(4.0)
	SK바이오랜드	1.6	1.9	14.2	13.2	(12.1)	5.3	0.9	(5.0)	1.4	(7.2)	(31.6)	(11.8)
	클리오	(6.9)	(2.3)	(2.3)	26.5	N/A	26.5	(7.6)	(9.1)	(15.1)	6.1	N/A	9.4
	에이블씨엔씨	(1.3)	(8.6)	23.4	49.5	(22.0)	28.7	(2.0)	(15.4)	10.6	29.2	(41.4)	11.7
	토니모리	(1.8)	1.9	2.6	(0.5)	(23.9)	(5.1)	(2.5)	(5.0)	(10.2)	(20.8)	(43.4)	(22.1)
생활소비재	코웨이	2.2	2.7	15.1	19.9	(5.6)	15.5	1.5	(4.1)	2.3	(0.5)	(25.0)	(1.5)
	쿠쿠전자	3.6	22.2	13.5	19.5	(10.9)	23.6	2.9	15.4	0.7	(0.9)	(30.4)	6.6
	뉴트리바이오텍	8.2	2.0	(22.6)	(12.4)	(39.1)	(25.2)	7.5	(4.9)	(35.4)	(32.7)	(58.6)	(42.2)
	콜마비엔에이치	(1.1)	13.8	36.2	47.5	(39.6)	24.8	(1.8)	6.9	23.4	27.1	(59.1)	7.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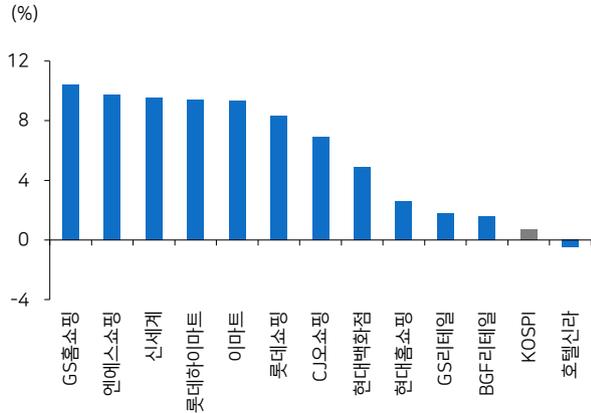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월마트	1.7	5.1	13.7	12.3	12.3	15.2	0.7	3.4	11.3	1.7	(3.8)	6.2
	이베이	0.3	6.2	4.7	24.3	47.3	19.0	(0.7)	4.5	2.3	13.6	31.1	10.0
	세븐 & 아이홀딩스	0.9	1.0	8.5	11.2	1.9	7.6	(1.6)	(2.8)	4.9	0.7	(19.3)	2.1
	노드스트롬	1.6	(14.4)	(8.4)	(24.9)	6.8	(11.4)	0.6	(16.1)	(10.7)	(35.5)	(9.4)	(20.3)
화장품	로레알	2.0	4.5	9.3	21.4	14.8	11.2	1.9	6.2	2.4	4.6	(6.1)	1.4
	에스티로더	2.7	5.3	15.9	26.8	3.3	25.7	1.7	3.6	13.5	16.1	(12.9)	16.7
	시세이도	6.0	27.5	25.5	32.3	33.9	29.6	3.5	23.7	21.9	21.9	12.6	24.0
	상해자화	(3.5)	(3.3)	(1.9)	0.1	(0.6)	2.2	(4.9)	(3.4)	1.6	3.2	(6.3)	2.1
생활소비재	LVMH	1.8	0.3	19.1	36.8	59.3	27.6	1.7	1.9	12.1	20.0	38.5	17.7
	나이키	1.2	(2.8)	(6.6)	5.0	(0.9)	4.2	0.2	(4.5)	(8.9)	(5.6)	(17.1)	(4.7)
	패스트리테일링	3.9	6.2	2.6	(6.0)	27.0	(8.6)	1.4	2.5	(1.0)	(16.4)	5.7	(14.1)
	조지루시	1.1	(12.5)	(11.1)	(9.4)	(31.5)	(15.6)	(1.4)	(16.3)	(14.8)	(19.8)	(52.8)	(21.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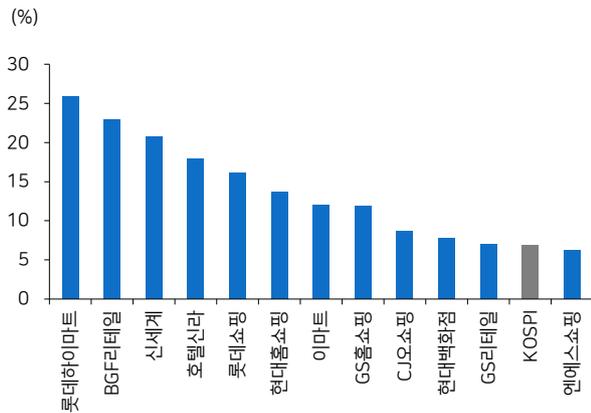
10. 주간/월간 수익률

유통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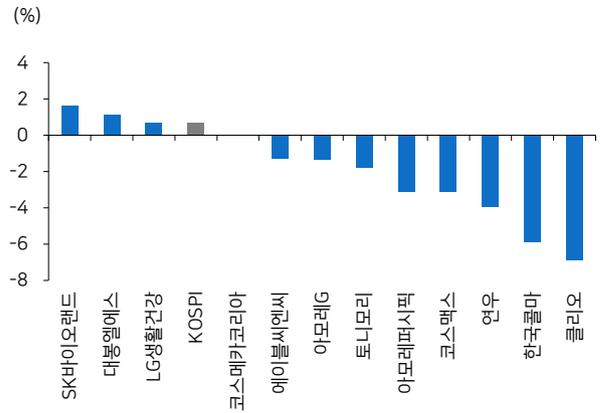
월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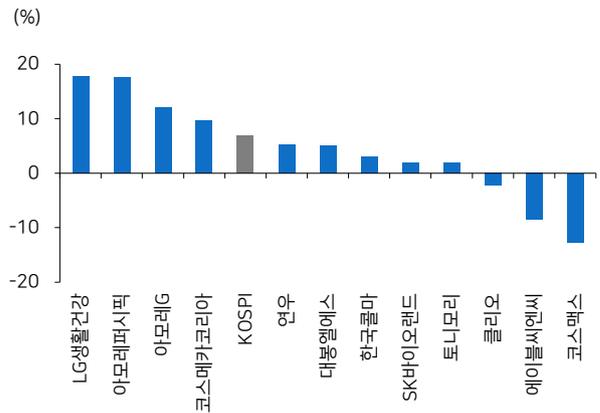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생활소비재)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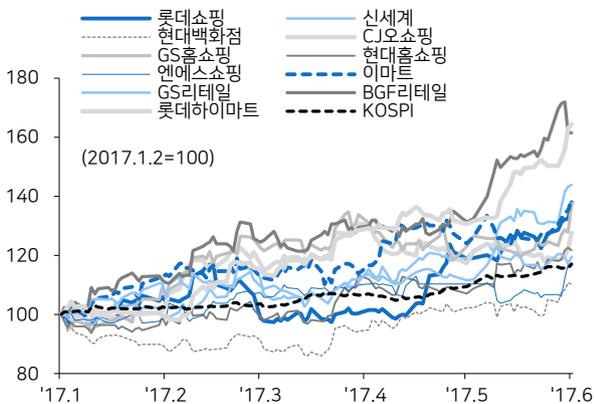
월간 수익률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1. 주가 추이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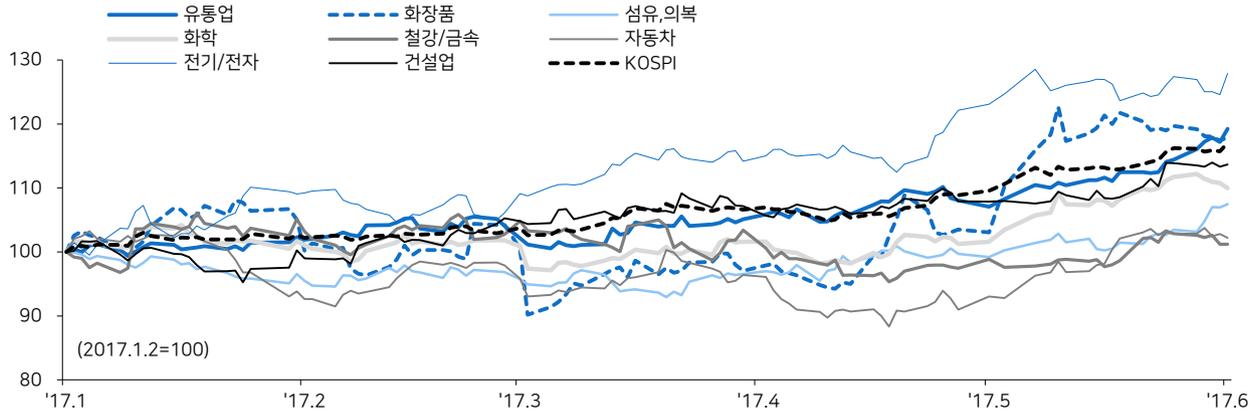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2.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3. 소비 주요지표

Monthly	'16.4	'16.5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소비지출전망 CSI	106	105	105	106	106	107	107	106	103	104	104	104	106	106
가계수입전망 CSI	99	98	98	100	100	100	101	98	98	98	97	98	99	102
소비심리지수	101.5	99.2	98.8	100.9	101.8	101.7	101.9	95.8	94.2	93.3	94.4	96.7	101.2	108.0
소비자물가지수(% YoY)	1.0	0.8	0.7	0.4	0.5	1.3	1.5	1.5	1.3	2.0	1.9	2.2	1.9	2.0
가계대출 증감률(% YoY)	13.0	12.7	12.3	12.0	12.0	11.8	11.4	11.5	10.8	10.4	10.4	10.0	9.8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5.3	14.7	14.0	13.6	13.4	13.1	12.6	12.4	11.7	11.2	11.1	10.6	10.3	
WTI (\$/B)	45.9	49.1	48.3	41.6	44.7	48.2	46.9	49.4	53.7	52.8	54.0	50.6	49.3	48.3
KOSPI (pt)	1,994.2	1,983.4	1,970.4	2,016.2	2,034.7	2,043.6	2,008.2	1,983.5	2,026.5	2,067.6	2,091.6	2,160.2	2,205.4	2,347.4
원/달러	1,139.4	1,191.9	1,151.8	1,120.2	1,114.8	1,101.1	1,143.8	1,169.0	1,205.8	1,161.3	1,130.3	1,118.5	1,137.7	1,195.7
원/위안	175.9	181.0	173.3	168.8	166.9	165.0	168.8	169.7	173.6	168.7	164.3	162.4	165.0	164.2
기준금리 (%)	1.50	1.5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소매판매액 증감률 (% YoY)	4.4	4.6	8.8	4.1	5.3	2.1	4.2	4.2	3.6	7.1	2.7	4.4	4.7	
내구재	8.9	13.2	15.0	1.6	6.6	-1.6	1.9	1.7	-1.1	2.4	9.4	2.4	5.8	
승용차	10.0	19.8	20.2	-10.5	-5.3	-9.4	-1.8	2.3	-6.3	3.5	11.4	-0.2	-0.9	
가전제품	12.1	10.0	20.9	20.1	24.1	13.8	5.2	-1.6	2.5	0.1	4.7	9.0	18.1	
통신기기 및 컴퓨터	2.7	3.4	-0.5	2.3	9.0	-3.4	2.6	0.9	1.5	0.3	2.3	-1.0	8.1	
가구	0.9	1.2	1.2	0.9	8.0	11.0	12.5	10.0	11.1	5.1	16.1	7.8	4.0	
준내구재	4.6	2.7	14.7	8.9	3.3	3.6	3.6	1.9	1.2	0.3	0.3	-0.3	1.6	
의복	4.4	2.5	16.4	7.5	-0.8	1.6	3.4	1.2	1.2	-1.2	-0.5	-0.6	3.2	
신발 및 가방	7.5	2.5	23.3	16.9	10.2	9.0	6.4	-2.0	-0.3	4.0	4.3	-1.2	-5.1	
오락, 취미, 경비용품	5.1	0.1	2.9	2.3	-0.1	0.7	-1.0	2.4	-2.2	-1.3	-4.0	-1.2	1.9	
비내구재	0.8	1.2	2.8	3.5	5.4	3.2	5.8	6.8	7.6	12.3	0.6	7.8	5.6	
음식료품	5.0	3.4	3.4	4.9	7.8	3.9	8.6	7.6	9.0	17.1	-10.1	7.6	4.9	
의약품	2.3	5.8	6.4	4.3	5.9	7.4	4.6	6.5	4.8	0.5	2.1	1.1	2.8	
화장품	11.9	12.6	22.1	29.6	26.4	17.2	14.2	15.1	17.2	11.9	16.1	4.8	-1.1	
서적, 문구	3.5	11.3	6.5	6.5	7.2	5.9	6.4	6.4	4.1	-1.9	-0.3	-1.4	-1.0	
차량연료	-11.5	-10.7	-5.1	-7.5	-4.1	-6.3	-1.1	3.0	4.2	11.3	14.5	13.6	9.7	

주: WTI, KOSPI, 환율은 월말 증가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Quarterly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1Q17
민간소비 증감률(% YoY)	0.8	(0.1)	1.1	1.4	(0.1)	0.8	0.6	0.2	0.4
도시근로자 소득 증감률(% YoY)	1.4	2.0	0.3	(0.5)	0.9	0.9	0.6	0.2	0.7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증감률(% YoY)	0.6	(1.9)	(1.6)	(0.5)	(0.6)	0.6	0.7	(2.2)	
가계신용잔액 증감률(% YoY)	7.4	9.2	10.3	10.9	11.4	11.1	11.3	11.6	11.1
가계대출 증감률(% YoY)	7.7	9.6	10.3	11.0	11.5	11.2	11.5	11.6	11.1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1.3	8.1	7.8	6.6	6.0	10.4	10.6	11.2	10.5
판매신용 증감률(% YoY)	3.2	3.5	10.5	8.2	10.5	10.8	7.0	11.6	1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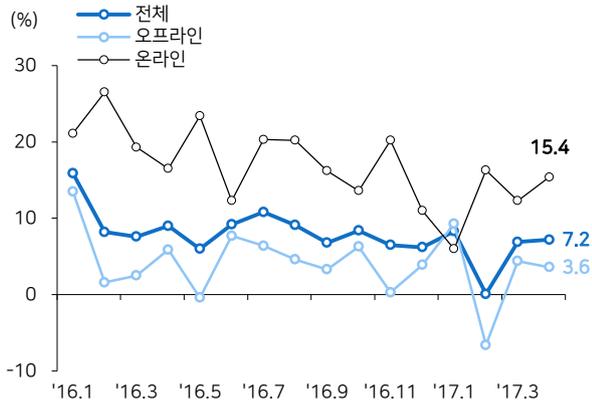
14. 중국 소매판매

(% YoY)	2015년			2016년												2017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전체소매판매	11.0	11.2	11.1	10.2	10.5	10.1	10.0	10.6	10.2	10.6	10.7	10.0	10.8	10.9	9.5	10.9	10.7	
일정규모이상	8.4	8.8	8.6	7.6	8.6	6.7	6.5	8.1	7.3	8.5	8.8	7.5	9.5	9.8	6.8	10.0	9.2	
음식료	16.1	16.1	17.0	11.2	11.7	12.1	11.1	11.9	10.5	10.5	10.2	8.8	9.1	9.1	9.6	12.5	12.1	
섬유의복	9.8	9.9	6.9	8.4	4.4	7.3	5.9	7.5	9.4	6.2	6.7	7.5	5.1	7.1	6.1	6.4	10.0	
화장품	10.6	9.1	5.9	11.4	9.2	7.6	5.9	7.9	9.0	5.8	7.7	4.0	8.1	11.0	10.6	8.7	7.7	
귀금속	4.0	4.9	11.1	-1.5	-9.3	5.0	-2.0	1.2	-1.1	-6.3	5.0	2.5	2.7	4.8	8.2	7.2	7.5	
일용품	10.1	14.0	16.3	10.3	12.2	12.7	12.8	11.7	10.4	10.0	12.5	9.5	10.7	13.9	9.2	7.1	8.0	
스포츠, 레저	14.3	23.7	28.6	16.0	16.8	19.7	12.9	19.7	5.2	5.1	7.1	9.4	24.8	13.9	19.5	12.8	8.6	
서적	8.0	7.1	11.1	7.5	15.4	4.8	9.3	3.3	7.4	7.7	8.7	6.6	12.8	9.5	11.5	11.1	4.8	
가전제품	7.1	18.0	13.5	7.9	6.0	9.1	0.7	12.3	11.5	7.1	8.6	7.6	14.7	9.5	5.6	12.4	10.2	
중의약	11.0	15.5	12.3	12.7	19.8	9.9	14.4	10.5	7.3	13.9	12.0	11.6	11.5	9.1	9.9	12.1	12.6	
사무용품	15.5	22.2	8.5	9.5	3.8	13.0	8.0	11.3	7.3	13.6	10.4	12.7	15.4	15.3	13.4	17.2	3.8	
가구	12.4	14.5	16.5	16.4	15.9	17.1	15.1	13.4	13.6	11.1	8.7	11.0	8.8	9.9	11.8	13.8	13.9	
통신	36.6	12.2	3.9	20.1	16.5	12.5	9.4	12.1	11.6	10.1	5.1	3.8	17.8	8.0	10.7	11.6	6.1	
석유제품	-7.1	-7.9	-2.6	0.5	0.3	-3.8	-4.5	-0.5	-2.1	2.7	2.9	4.7	5.7	7.1	14	11.3	12.1	
건축재	19.7	16.9	20.0	14.9	15.6	17.3	16.8	14.2	15.0	16.3	14.2	12.3	11.0	10.2	12.9	17.8	13.4	
자동차	7.1	9.0	8.1	5.4	12.3	5.1	8.6	9.5	9.2	13.1	13.1	8.7	13.1	14.4	-1.0	8.6	6.8	
기타	13.5	6.6	3.1	11.5	4.1	5.3	5.6	2.6	1.0	0.6	-0.3	2.6	0.0	-0.7	6.9	6.0	4.7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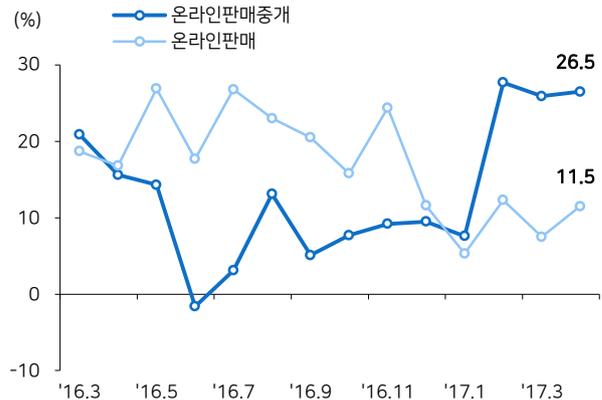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전체 매출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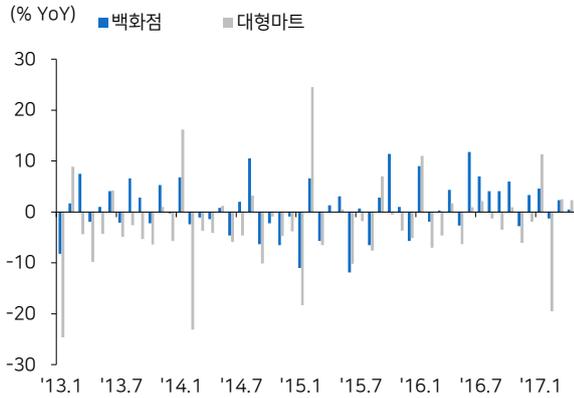
온라인 매출동향



주: 온라인판매증가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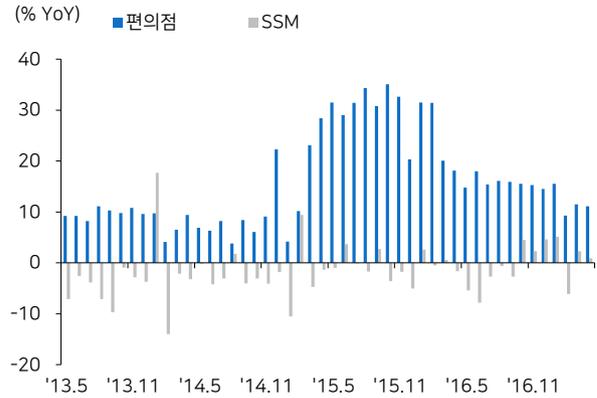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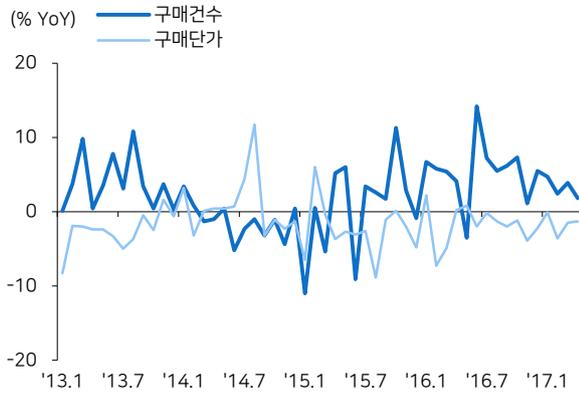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및 SSM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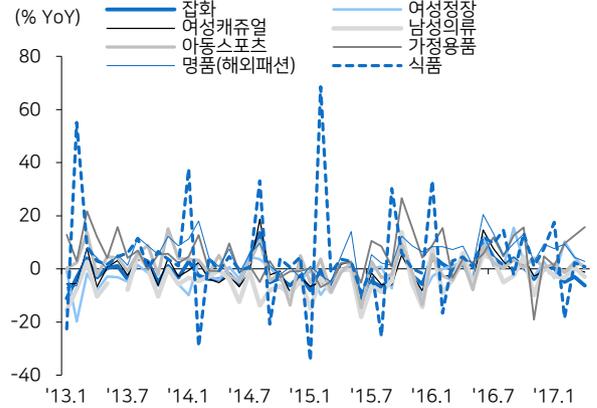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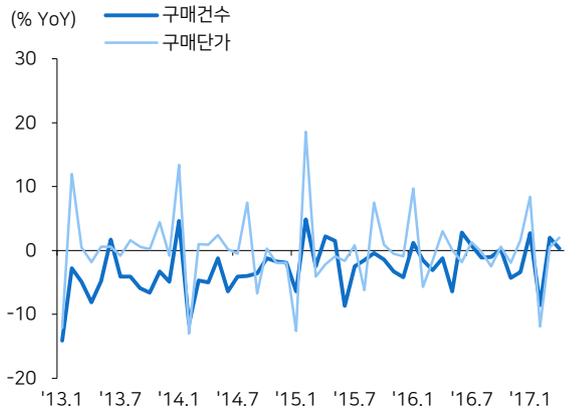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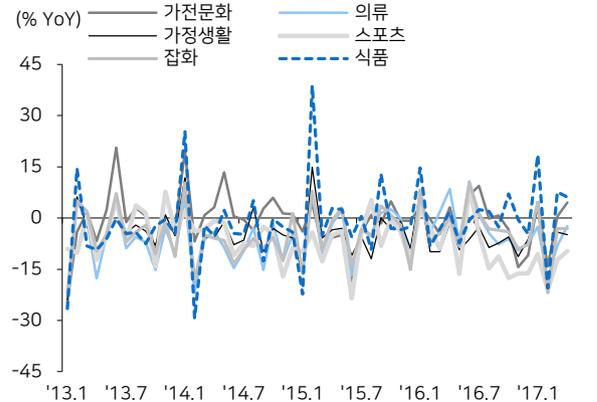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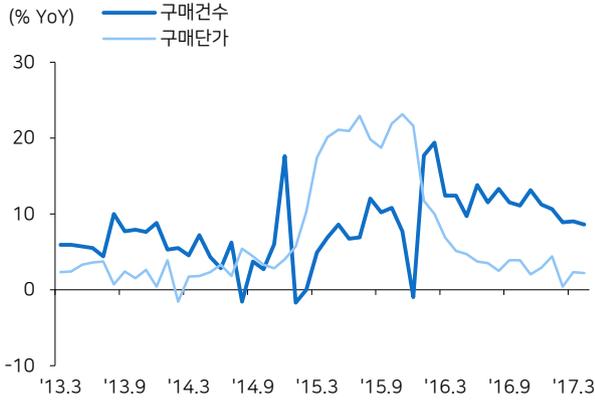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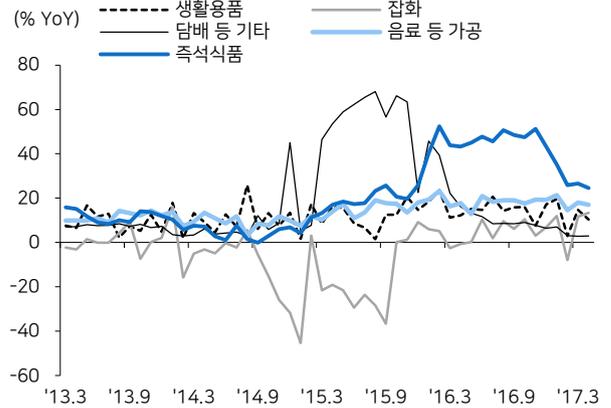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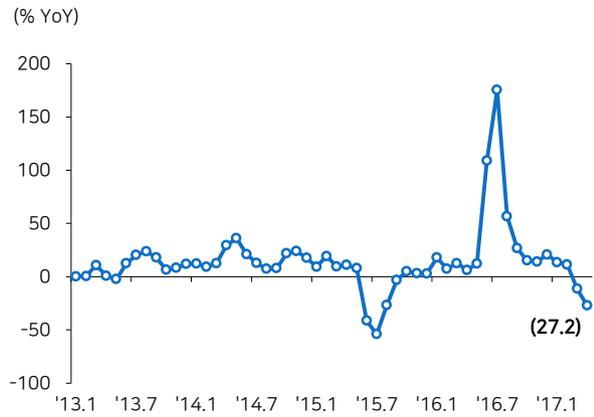
편의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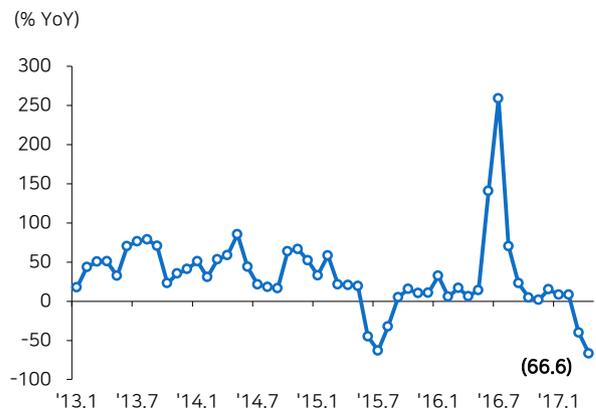
16. 중국 인비운드 동향 점검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4월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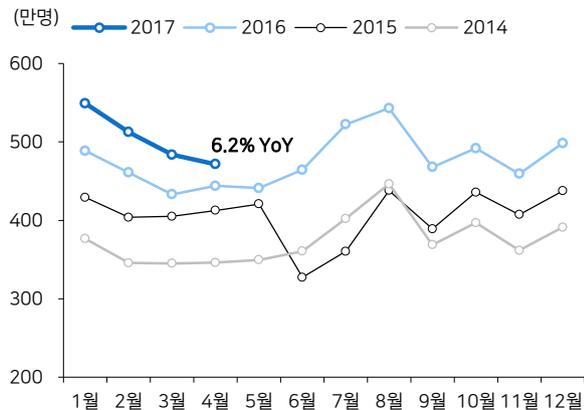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추이: 4월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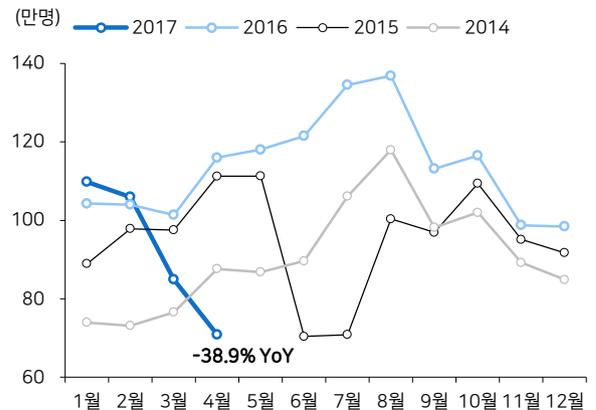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합산 여객 수송 월별 추이: 4월 +6.2%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중국 여객 수송 월별 추이: 4월 -38.9%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7. 면세점 동향

(천명, 천달러, %)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2015년 09월	1,918		198,197		1,298		428,676		3,217		626,873	
2015년 10월	2,217		237,277		1,527		536,616		3,744		773,893	
2015년 11월	2,197		235,316		1,403		511,651		3,601		746,967	
2015년 12월	2,238		239,745		1,437		525,394		3,675		765,139	
2016년 01월	2,423		236,752		1,525		517,385		3,948		754,137	
2016년 02월	2,217		211,662		1,491		490,268		3,708		701,930	
2016년 03월	2,089		212,725		1,610		609,963		3,699		822,688	
2016년 04월	2,220		241,886		1,831		633,957		4,051		875,843	
2016년 05월	2,237		245,607		1,844		625,903		4,081		871,510	
2016년 06월	2,315		245,118		1,842		624,564		4,156		869,682	
2016년 07월	2,413		267,849		1,917		637,508		4,330		905,357	
2016년 08월	2,558		285,522		1,900		682,417		4,459		967,939	
2016년 09월	2,449	27.7	277,106	39.8	1,711	31.8	666,473	55.5	4,160	29.3	943,579	50.5
2016년 10월	2,420	9.2	267,841	12.9	1,846	20.9	728,971	35.8	4,266	14.0	996,812	28.8
2016년 11월	2,312	5.2	251,214	6.8	1,519	8.3	666,382	30.2	3,832	6.4	917,596	22.8
2016년 12월	2,272	1.5	247,595	3.3	1,595	11.0	733,931	39.7	3,867	5.2	981,526	28.3
2017년 01월	2,509	3.6	260,718	10.1	1,682	10.3	708,392	36.9	4,191	6.2	969,110	28.5
2017년 02월	2,485	12.1	257,709	21.8	1,633	9.5	882,538	80.0	4,118	11.1	1,140,247	62.4
2017년 03월	2,534	21.3	267,001	25.5	1,235	-23.3	664,945	9.0	3,768	1.9	931,945	13.3
2017년 04월	2,705	21.9	299,059	23.6	998	-45.5	590,151	-6.9	3,704	-8.6	889,210	1.5
2009	12,853		1,441,700		8,410		1,592,700		21,263		3,034,400	
2010	15,255	18.7	2,167,500	50.3	8,178	-2.8	1,749,700	9.9	23,433	10.2	3,917,200	29.1
2011	16,427	7.7	2,416,800	11.5	9,872	20.7	2,445,900	39.8	26,299	12.2	4,862,700	24.1
2012	16,834	2.5	2,367,800	-2.0	12,002	21.6	3,240,100	32.5	28,836	9.6	5,607,900	15.3
2013	17,146	1.9	2,342,900	-1.1	12,437	3.6	3,897,600	20.3	29,583	2.6	6,240,500	11.3
2014	18,557	8.2	2,451,800	4.6	15,766	26.8	5,451,400	39.9	34,323	16.0	7,903,200	26.6
2015	24,587	32.5	2,725,700	11.2	16,081	2.0	5,416,900	-0.6	40,668	18.5	8,142,600	3.0
2016	27,925	13.6	2,990,877	9.7	20,632	28.3	7,617,723	40.6	48,556	19.4	10,608,600	30.3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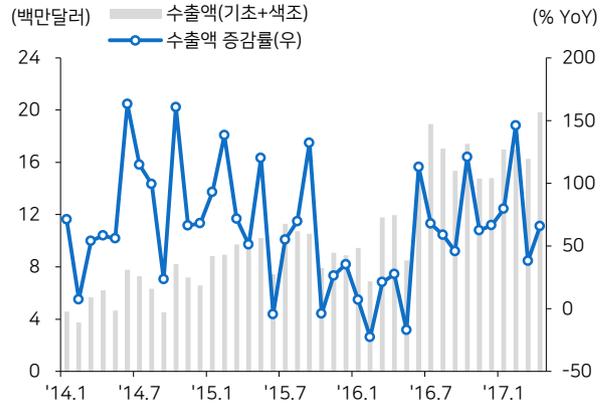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화장품 전체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5.9% (잠정)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23.3%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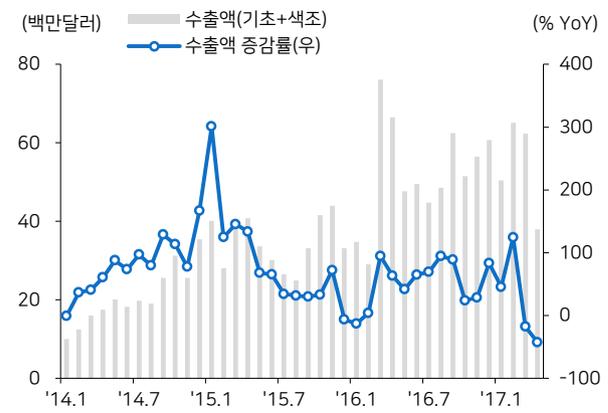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5.0% (잠정)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가율 -4월 -42.9%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p>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p> <p>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p> <p>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p> <p>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p>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p>Overweight (비중확대)</p> <p>Neutral (중립)</p> <p>Underweight (비중축소)</p>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2.5%
중립	7.5%
매도	0.0%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